

# 여수·순천·광양, 항공사 설립 검토 지방 해외여행객 잡기 쟁탈전 치열

### 제주항공·에어부산 운송시장 성장... 저가항공사, 무안항공 국제선 증편

지방의 항공 수요를 잡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항공사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지방의 잠재 고객들을 잡기 위한 지방공항 공략을 강화하고 나섰다.

◇여수공항 중심 타당성 조사=21일 여수시와 지역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여수를 비롯, 순천·광양 등 광양만권 3개 시는 여수공항을 모(母)기지로서 지역 항공사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처럼 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항공사들이 지역 항공운송시장 성장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다.

제주도가 50억원을 자본금으로 지원한 제주항공은 최근 최신기종 항공기 50대를 새로 도입하는 등 취항지와 항공편을 계속 늘리며 공항 활성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에어부산도 25억원, 이스타항공도 11억원을 지자체가 지원하면서 지역 잠재 여행 수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수·순천·광양 3개 시 행정협의회도 이같은 점을 감안,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여수공항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 항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여수공항의 경우 지난해 126억원의 적자를 냈고

최근 3년(2016~2018년)간 지원한 재정지원보조금만 14억원(전남도 12억, 여수·순천·광양 2억 5000만원)이 넘는다.

여수공항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적자 노선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여전하다는 얘기다.

3개 시 행정협의회는 빠르면 다음달 5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항공사 설립과 관련, ▲국내의 사례 및 운영현황 ▲경제적 파급·기대효과 ▲소형항공운송사업 전망 및 사업 수지 분석 ▲출자 타당성 및 운영방안 ▲부정기 국제선 취항 연계 방안 등을 살펴보고 향후 5년(2019~2023년)간 여수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수요 분석 및 증대 방안을 분석키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 9월 열린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역 기반 항공사 설립 용역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안공항, 저비용항공사 각축장되나=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은 최근 대형 항공사와 해외 항공사의 진출이 적은 지방 공항을 중심으로 국제선 노선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더 이상 노선을 늘리기 어려운 인천·김포 대신, 지방의 잠재 고객들을 잡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당장, 제주항공의 무안공항을 통한 지방 여행객 공략은 공격적이다.

제주항공은 무안국제공항을 '제3의 허브'로 설정, 다음달부터 취항노선을 6개로 늘렸다. 무안-오사카, 타이베이, 방콕, 다낭에 이어 코타키나발루, 세부 등을 신규 취항하면서 기존 16회 운항편수를 32회로 크게 확대했다. 무안-오사카, 타이베이 노선은 주 5회에서 7회로, 무안-베트남 다낭은 주 2회에서, 주 7회로 늘어나게 됐다.

제주항공은 여기에 연료 효율이 높은 비행기 50대를 새로 도입하면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노선을 만들 가능성도 커지는 등 지방공항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티웨이항공도 무안-기타쿠수 노선에 이어 다음 달부터 일본 오이타 노선을 주 3회 정기 취항키로 하면서 무안공항도 LCC 각축장이 되는 분위기다.

지방공항도 LCC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무안공항은 올 이용객이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43만 5000명을 기록, 지난해(29만8000명)에 견줘 84.2%로 급증했다. 남화산업은 잠재적 항공수요 등을 감안, 무안CC 이용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레지던시와 골프텔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관광상품 개발, 주변 역세권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공정위,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 조사 금호아시아나 "정상 절차 거쳐"

### 대여회사의 정상적 이자 문제 없어...완전 상환 끝난 사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중이다.

금호는 정상적 절차를 거친 자금 지원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박 회장과 그룹 임원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와 함께 금호측의 답변을 받아 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 등의 입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난 2015년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2016년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차입할 때 이자율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금호홀딩스가 당시 외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율은 5~6.75%이지만 계열사 차입금 이자율은 2~3.7%로 이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들어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박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측은 이와관련, "자금이 여유있는 회사로부터 그룹사가 정상적 절차를 거쳐 지원을 했는데 이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대여회사의 정상적인 이자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기간에 대차가 이루어졌지만 완전 상환이 끝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경제개혁연대의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타이어는 지난 20일(현지 시각) 영국의 축구단 토트넘 핫스퍼와 파트너십 후원 계약을 맺었다. <금호타이어 제공>

## 금호타이어, 손흥민 구단 '토트넘' 후원 연장

금호타이어가 영국 축구단 토트넘과 후원 계약을 연장했다.

금호타이어는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핫스퍼 웨이에서 축구 구단 토트넘 핫스퍼와 계약을 맺고 2020~2021 시즌까지 3년간 글로벌 공식 타이어 파트너사를 맡아 계속 후원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6년 토트넘과 처음 계약을 맺고 2년간 후원 활동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 3년 더 후원기로 계약을 연장했다.

토트넘은 1882년 창단,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3위의 성적을 낸 구단으로, 손흥민 선수가 지난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하면서 국내 팬들도 많다.

금호타이어는 토트넘의 홈구장에서 열리는 리그 및 컵대회 경기 중 LED(발광다이오드) 광고, A-보드 광고, 경기 책자, 홈페이지 등에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노출하게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가계 빚 사상 첫 1500조 돌파

### 전분기보다 22조원 증가... 소득보다 증가 속도 빨라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섰다. 대출 조이기 정책으로 증가속도는 둔화했으나 여전히 소득보다 빨리 불어나 가계의 부담은 확대 추세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중 가계 신용'을 보면 3분기 말 가계신용은 151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말(1492조4000억원)보다 22조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통계다. 가계 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

가계신용 잔액이 1500조원대로 올라섰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전 분기 대비 증가금액이 2분기(24조1000억원) 보다 적어졌다.

계절적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동일하게 3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증가액이 2014년(20조6000억원) 이후 최소다. 가계대출 급증기인 2015~2017년에는 평균 30조5000억원씩 늘었다.

지난 1년 간 증가액은 95조1000억원으로, 100조 원 아래로 내려갔다. 2015년 1분기 이래 3년 반만에 가장 적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6.7%로, 2014년 4분기(6.5%) 이후 가장 낮았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6년 4분기(11.6%)를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했다.

가계신용 증가 속도는 소득과 비교하면 아직도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올해 2분기 월평균 명목 가계 소득은 1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3분기에도 소득 증가율이 가계신용 증가세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가계 소득 증가율은 현 정부 출범인 작년 2분기 이래 5%를 넘은 적이 없다.

가계가 세금, 사회보험금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은 0~1%대로 더 낮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신용 증가세가 소득보다 여전히 빨라 가계 부채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www.jnbada.or.kr

TURN SEA FOR HAPPY

# 2018 전남귀어 스톨엑스포

## 청년 전남, 황금바다

2018. 11. 24(토)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  
장흥군 안양면 로하스로157 (비동리 산84-1)

문의전화 062-220-0581

전라남도 전남어촌 특화지원센터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